

공 램 의 건 서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공 고 명 |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 | | | |
| 공람기간 (제출기간) | 2019. 11. 13 ~ 12. 13 | | | |
| 의 견 제출인 | 성 명 | (사)나눔과미래 | 전화번호 | 02-928-9064 |
| | 주 소 |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0 길음환승주차빌딩 705호 | | |

공 램 의 건

지난 11월 13일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에 대한 공람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. 대상지역 중 11, 12지구는 쪽방 밀집지역으로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.

공람 내 지구지정 사유서에서 해당지역 개발계획을 변경한 사유는 쪽방입지, 저층주거지가 다수 밀집하여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기결정된 공원부지 중 일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소단위정비·소단위관리지구의 용도 계획을 살펴보면 노유자시설(도심내 업무종사자를 위한 아동관련 시설), 숙박시설(도심관광을 위한 게스트하우스, 소규모호텔 등)으로 권장용도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해당지역이 쪽방, 저층주거지임을 고려한다면 위 계획으로는 현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. 개발계획에는 임대주택 공급 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. 또한 개발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주거지 마련 되어야 합니다.

쪽방주민들이 개발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쫓겨나 인근의 쪽방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개발 이후 지역 내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12. 13.

중구청장 귀하